

사 서 의 권 리

도서관은 전문시설이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도서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도서관을 그저 '책 창고' 정도로 여기는 것이 도서관에 관한 이 나라의 상식은 아닐까? 그러나 이런 생각과 달리 도서관은 심오한 전문시설이다. 누구나 도서관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도서관의 운영은 전문가가 해야 한다. '사서'라는 전문가가 도서관을 운영해야 한다.

지난 겨울에 자료를 찾으러 일본에 갔다가 한 서점에서 우연히 사서에 관한 책을 보게 되었다. 아마도 그 책은 사서가 사서에 관해 쓴 책이었던 것 같다. 내용이 꽤 흥미로와 보였으니 그 책을 사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조금 후회를 했다. 그래서 일본 아마존에 접속해서 '사서'라는 검색어로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했다. 무슨 내용이었는가?

서점에서 잠시 그 책의 요지만 읽었을 뿐이고, 이제는 그 중의 일부만 겨우 기억에 남아 있다. 한마디로 그냥 스쳐갔던 책이다. 그래도 여전히 그 편린이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그 내용이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서 아주 특이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 내용은 바로 '사서의 권리'를 사회에 대해 선언하는 것이었다. 책을 수집할 권리, 분류할 권리, 대출할 권리 등 여러 권리들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사서는 이런 권리를 행사해서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이 놀랍게 느껴졌던 것은 두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 우선 사서의 권리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신선하게 다가왔다. 나는 한번도 그런 생각을 해 보지 않았던 것이다. 사서의 권리는커녕 사서의 존재조차 제대로 느끼지 않고 지나왔다. 둘째, 일본에서는 사서라는 존재가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적어도 한국보다는 훨씬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이 점에서 역시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문득 다른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일본에서도 사서의 지위는 튼튼하지 못한 모양이다"는 의문이었다. 사서의 권리로 미루어 짐작컨대 사서에 '검열'이 가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사서의 권리는 사서가 무엇보다 사상의 자유를 다루는 사람이고, 따라서 사서는 사회의 발전을 위해 '검열'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도서관이 지식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중요한 사실이었다. 예컨대 도서관은 사상을 널리 퍼트리기 위해 존재해야 하며, 사서는 도서관의 이런 기능이 제



홍 성 태*

*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과 교수
hongst3@sangji.ac.kr

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전문가여야 한다. 사서에 대해 책을 다룬 권리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도서관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사서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자신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압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 사서는 도서관이 제 구실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전문가다.

그러나 내 의문과는 달리 일본에서 사서의 지위는 튼튼한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한국보다는 크게 튼튼한 것 같다. 일본 아마존에서 문체의 책을 찾지는 못했지만, 사서를 다룬 많은 책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경영과 학교도서관 - 사서교론 시리즈', '사서·학예원을 목표로 하는 사람의 생애학습개론', '도서관 사서라는 일', '인터넷 시대의 학교 도서관', '학교 도서관 직원론', '도서관 자료의 구축 - 사서와 도서의 접점을 찾아서' 등 아주 많은 책들이 있다. 이밖에 고트프리트 로스트라는 서구인이 쓴 '사서'라는 제목의 책도 번역되어 있는데, 이 책은 사서를 인문학적으로 다룬 흥미로운 책으로 소개되어 있다.

비교를 위해 국내의 유명한 모 인터넷 사이트에서 같은 검색어로 검색해 보았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사서를 다룬 책이 단 한 권도 출간되지 않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마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는다. 그러나 적어도 그 사이트에서 사서라는 검색어로 책 검색을 했을 때, 사서를 다룬 책은 단 한 권도 검색되지 않았다. '뭘 사서 뭘 하자'거나 '뭘 사서 뭘 했다'는 식의 책, 또는 '사서경학' 등의 책만 잔뜩 있었다. 내가 무슨 말들이 허무개그를 연출한 듯한 느낌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이 이렇게 실없어질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검색 아닌 검색을 마쳤다.

일본에서는 사서라는 직업이 전문적으로 확립되어 있으며, 심지어 그 역사에 관한 인문학적 연구까지 번역되어 있는 상황이다. 물론 사서를 주인공으로 삼은 만화도 출판되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비해 우리는 사서라는 직업을 직업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이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이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도서관이라는 중요한 지식시설을 엉터리로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사서라는 직업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사서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국에서 사서는 존중되고 있는가? 한국에서 사서는 과연 전문가로서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점에서 한국 도서관의 현실은 어떤가? 사서보다는 시설, 시설보다는 건물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 때문에 사서가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은커녕 엑스트라로도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닌가?

사서의 권리는커녕 사서의 존재 자체가 사회적으로 사실상 전혀 의식되지 않는 것이 한국의 솔직한 반문화적 상황인 것 같다. 학교에는 선생님이 있는 것처럼 도서관에는 사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아마도 이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서관에는 책을 이리저리 옮기거나 책을 빌려주고 돌려 받는 일을 하는 직원들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사서라는 도서관의 전문가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을 이 나라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사서라는 도서관의 전문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도서관이 도서관다워진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 나라에서는 아마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지식사회의 도래’를 외친지도 어느덧 10년이 다 되어간다. 그런데도 도서관의 전문가인 사서의 존재는 여전히 무존재에 가까운 것 같다. 이것은 아무래도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서의 지위는 여전히 과거의 개발독재 시대와 비슷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참된 지식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도 사서의 중요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커져야 하지 않을까? 사서가 도서관의 전문가로 제대로 일할 수 있어야 더 많은 도서관이 도서관다워지고 지식사회의 기반이 더 단단해질 것이다. 사서들은 사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더욱 활발하고 왕성하게 사회적 활동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 그런 활동을 하는 길 자체가 제한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다.

서구의 책에서는 사서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어느 도서관의 어떤 사서가 도와줘서 이 책을 쓸 수 있었으므로 그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는 것이다. 오래 전의 일이지만 보통 책의 제일 앞에 자리잡고 있는 ‘감사의 말’에서 이런 문구를 처음 읽었을 때 나는 아주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아, 사서에게 이렇게 감사할 수도 있구나. 사서가 아주 중요한 전문가라는 사실을 그런 감사의 말을 접하면서 깨우치게 되었다. 사서가 저자에게 필요한 책과 자료를 전문적으로 찾아주면, 저자는 더욱 더 집필에 몰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흘렀으나 아직까지 한국의 책이나 논문에서는 그런 감사의 말을 읽지 못했다. 물론 누군가 사서에게 감사의 말을 썼으나 내가 아직 읽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런 감사의 말은 있다고 해도 아주 드물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구에서 저자와 사서가 그렇듯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함께 작용했을 것이다. 예컨대 필요한 책이며 자료를 개인적으로 구입하기 보다는 도서관에서 찾아서 이용하는 풍토, 필요한 책이며 자료를 찾아서 읽고 공부하기 좋게 되어 있는 도서관의 구조 등이 사서의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서의 가치를 제대로 살리는 과제와 도서관을 제대로 만드는 과제는 둘이서 하나인 것 같다. 말하자면 2인 3각의 과제인 것이다. 아무튼 저자들이 사서에게 감사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서들이 적극적으로 저자가 되기를 바란다. ☹